

위생관리계획의 수립 (2)

가톨릭의대산업의학연구소
소장 이 광 목

지난호에서 위생관리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호에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I. 첫단계 (현상파악, “SEE”)

1년간의 계획을 효과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전위생에 관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생관리에 관한 정보, 즉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그래서 어떤 점에 활동초점을 둘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전체적인 흐름

문제점을 찾는 경우 흔히 어떤 한가지 부분에 집착하는데 그치기 쉽다.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은 어떤 한 분야만 충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보건분야에서 직업병을 예방하는 일이나 직업병을 찾아내는 일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특수검진만 정확히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 산업보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노동부의 실무행정요원 모두가 하고 있다. 또 환경측정이 환경관리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나무에 비교한다면 한 두개의 가지에 불과하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2) 잠재적인 문제점의 파악

산업위생관리는 그 목적이 질병예방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과거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예측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방침에서부터 아주 말단적인 작은 일 (공정을 포함해서) 까지 위생관리담당자가 친숙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산업위생전문가라도 현장과 친숙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단체운동경기에서 어떤 한명의 Star player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작업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을 때도 환경측정값만 가지고 환경정리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현상에 관한 배경을 찾아내야 한다. 즉 재료, 공정, 설비, 방법, 측정, 특수검진결과, 교육, 근로자의 태도 등 알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따라서 우선 넓은 시야를 갖고 다각적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 과거의 기록

잠재적인 위험 (Hazards) 을 찾는데 있어서 과거의 기록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통계적 개념에서는 회귀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장래를 추측하는데 위험이 따르며 또 기록이란 기록일 뿐, 재해나 직업병의 원인 자체는 아니다.

재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1년분의 기록만을 가지고 참고한다면 때로는 전혀 쓸모가 없을 때가 많다. 같은 기계에서 유사한 부상이 일어나도 그것은 전혀 다를수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자료를 포함한 폭 넓은 정보가 필요하다. 재해는 순간적인 운과 불운으로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쉬운 예로서 버스가 전복하였을 때도 승객이 전부 같은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다. 유사한 재해사례로부터 공통점을 찾아 이를 문제점으로 보아야 한다.

또 사업장내의 감시체제로 발견된 결과에 따라 어떤 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문제될 때 우리는 곧 공정이나 사용물질의 대치 또는 국소배기시설의 설치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도 국소배기장치 자체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 장치의 정기점검, 보수 등 관련사항까지도 관리기준으로 정하여 놓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4) 법령과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가지 환경정리기준은 적어도 산업위생상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해서 정하여진 것이므로 두가지 면에서 지켜져야 한다. 우선 법을 지킨다는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에서 지켜져야 한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법이 정하는 일은 최저의 기준

이므로 법규정만 이행해서는 충분치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연간계획 수립시에는 법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생산계획과의 관련

위생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산계획이나 설비계획에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새로운 공법이나 설비가 도입되는 경우 미리 위생관리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생관리문제는 생산계획보다 늦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항상 사후조치밖에 안되었다.

6)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안되는 일은 현장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위생관리의 목적이 그들의 건강유지이므로 그들의 위치나 의견이 중요하다. 또 위생관리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 어쨌던 위생관리계획은 기업에서 세우는 것이므로 최종결정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이나 현장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을 뺄 수는 없는 것이다.

7) 안전위생관리위원회의 활동

현재의 위생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였고 그러한 활동이 실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과거의 활동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간계획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위생관리를 하는중 마는중 하는 것은 시간과 경비의 낭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적인 정보에서부터 현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정

보를 얻어 활용하여야 한다.

II. 제 2 단계 (현상에 관한 판단)

첫단계에서는 정보를 어떤 각도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보를 얻었으면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얻어진 정보는 때로는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판단을 곤란케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검토를 하면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정보가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는 정보끼리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측정이나 국소배기장치 등의 점검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외에 원료의 취급방법, 생산설비의 정비상황, 보호구의 사용, 특수건강진단, 위생교육 등 각각의 분야가 만족되어야 하며, 이들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그 점을 개선하여야 하므로 계획수립에서 적극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업장의 안전위생판리의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하고 모여진

정보를 서로 참조하여 현재의 위생관리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첫단계로서 현상의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다음호에서는 계획은 어떻게, 누가, 어떤 것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설명코자 한다. 우리는 흔히 계획 입안자의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 ① 흥미위주
- ② 업적위주
- ③ 요식행위위주
- ④ 책임회피적
- ⑤ 무관심

⑥ 남에게 또는 상사에게 보이기 위한 것 등.

위에서 지적된 태도는 계획의 어구를 가다듬는데는 도움이 되고 일견 잘 되어진 것 같으나 남의 눈을 속이는 결과를 낳기 쉽다. 태도에서 마음가짐에서부터 근로자들을 항상 머리에 두고 해야 한다.

- 계 속 -

원 고 모 집 안 내

산업보건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내용 - 사업장 보건관리 성공사례 (200 자 원고지 10 매내외)
 - 산업보건에 관한 수상 (200 자 원고지 7 매이내)
 - 산업보건에 관한 법령질의 (200 자 원고지 5 매이내)

○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우송해 드리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고지는 200 자 원고지에 한글로 가로로 쓰시고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안에 기재하시고 집필자의 성명·주소 및 소속기관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당 협회 본부 회보편집실